

다산의 ‘천자문 교과서’ 탄생 이야기

김옥에 동화 작가 ‘봉넛방 손님의 선물’ 펴내

다산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다. 그러나 천주교 박해와 보수적인 노론 벽파에 밀려 강진에 유배를 당해야 했다. 다산은 그곳에서 500여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조선 실학체계를 완성했다. 그에게 유배는 일신의 간헐이 아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유의 여정이었는지 모른다.

다산의 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책 가운데 하나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다.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다산의 수많은 책 가운데 ‘아학편’이라는 저서가 있다.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한자 2000자를 엮어 만든 것으로, 다산은 이 책으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만큼 각별한 의미가 깊은 책이다.

이번에 조선의 한자 교과서 ‘아학편’을 소재로 한 역사장편 동화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강진 출신 동화작가 김옥에 씨가 발간한 ‘봉넛방 손님의 선물’(창개구리)은 아이들의 교육에 정성과 열의를 다했던 다산의 정신을 담고 있다.

책에는 유배지에서 만난 다산과 아이들이 꾸꾸는 조선의 미래가 오듯이 수록돼 있어 민족의 정체성과 배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해 다산이 펴낸 ‘한국의 천자문 교과서’의 탄생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책의 제목 ‘봉넛방 손님’은 강진에 유배된 다산을 의미한다. 봉넛방은 당시 주막



김옥에 작가



집의 주모가 내준 방으로, 다산은 이곳을 ‘사의재(四宜齋·4가지 실천항목)’라는 방으로 명명하고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전진했다.

동화 줄거리는 가난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봉주라는 소녀와 한양에서 유배 온 봉넛방 손님 다산을 중심으로 펼쳐

쳐진다. 마을 서당 훈장에게 ‘천자문’을 빌려 공부를 하던 봉주는 그만 책을 잃어버리고 갖은 괴로움에 시달린다. 그때 마침 봉넛방 손님으로부터 ‘아학편(兒學編)’을 받게 된 봉주는 소원이었던 글공부를 하게 된다.

비교적 간단한 줄거리이지만, 책은 역사장편 동화답게 팩트와 상상을 넘나들며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다산의 면모를 조명한다.

김 작가는 “글을 쓰고 나서 정약용을 연구하는 양광식 선생님께 보여주었다. 다산이 주모에게 반말을 쓰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다산은 여자의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인권의식이 높았다”며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정약용의 인품에 감명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동화 ‘봉넛방 손님의 선물’의 배경이 된 다산 사의재.

“운명은 아름다운 기적”

목포 출신 송병국 시인

‘겨울나무 그림자’ 출간

목포 출신 송병국 시인이 2년여 만에 다섯 번째 시집 ‘겨울나무 그림자’(한림)를 출간했다.

시집에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과 삶에 대한 성찰,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된 작품 등 100여 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제1부 계절의 정경다라, 제2부 시간의 공간여행, 제3부 달팽이의 초승달 등 모두 6부로 구성된 시집은 자연을 매개로 한 생명의 경이감과 시간의 흐름속에서 깨닫는 생에 대한 성찰이 간결하면서도 정갈한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송 시인은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한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다.

한편 송 시인은 2009년 장성 신홍중 교장을 마지막으로 40여 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으며, 그 해 ‘문학춘추’ 봄호에 ‘장생도’ 외 4편으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조문도’, ‘장생도’, ‘달을 품은 알’ 등을 펴냈고 현재 문학춘추작가회원, 광주문협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주자사상 학술대회’

11일 화순 하니ום센터 만연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자묘와 주자사당이 있는 화순군에서 주자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주자문화보존회와 조선대 우리철학연구소가 11일 오전 10시 화순 하니ום센터 만연홀에서 ‘주자사상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현성전 주대 교수가 ‘주자 세계관의 현실적 의의’에 대해, 정상봉 건국대 교수가 ‘육방관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강진석 한국외대 교수, 김재경 조선대 교수, 홍원식 계명대 교수, 안재호 중앙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최영진 성균관대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12일에는 주자묘, 적벽 등 화순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10-3228-4141.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베토벤, 그 위대한 합창



광주시립합창단 40주년 기념연주회 ... 내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지난 1976년 창단한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규)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시민합창단에서 출발해 1978년 광주시립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석봉용, 김연술, 김동현, 유병무, 구청 등 역대 지휘자들과 함께 미국, 일본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열어왔다.

특히 3년전 임한규 현 상임지휘자 부임 후에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시립합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연주회가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베토벤, 그 위대한 합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악성’ 합창곡들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악성’ 베토벤의 합창곡 한 자리에서 들을 기회

첫 번째 곡은 ‘C장조 미사’다. 베토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장엄 미사’에 비해 많이 연주되는 곡은 아니지만 이 작품 역시 베토벤의 개성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곡으로 평가받는다.

혼성합창과 4명의 독창, 관현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베토벤의 대표작 ‘운명’과 동시대 작곡됐다.

이어 ‘코랄 판타지’를 들려준다. ‘합창 환상곡’으로 불리는 이 곡은 피아노의 독주가 돋보이는 도입부, 작품 주제와 8개의 변주로 구성된 2부, 합창과 함께 연주되는 3부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작품인 ‘피델리오’ 서곡이다.

프랑스 공포정치 시대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피델리오’는 독재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을 그리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죄수들의 합창’과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를 선보인다.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국립합창단, 알테무지크 서울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주희성, 소프라노 이인영, 메조소프라노 전진, 테너 강동명, 바리톤 공병우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정상급 협연진과 이 지역 출신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으로 문예회관 홈페이지(giart.gwangju.go.kr)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415-520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ACC 인문강좌와 함께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등

김전우·주영하 교수 강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일부터 30일까지 극장3에서 ‘ACC 인문강좌’ 11월 행사를 운영한다.

첫번째 강의(오늘 오후 7시)는 김전우 GIST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김 교수는 현재 인공지능·로봇 발전상, 직업 세계 등에 대해 설명한다.

9일(오후 7시)에는 이화경 소설가가 참여해 ‘늦어도 11월에는-소설가가

들려주는 문학작품 속의 사랑 이야기’를 강의한다. 시대와 국적을 뛰어넘는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른 문학작품을 소개한다.

임석재 이화여대 교수는 14일(오후 5시) ‘예(禮)로 지은 경복궁, 동양미학으로 읽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 유교 건축의 총 집합체이자 교과서이며 정치적으로는 조선 통치이념을 세상에 공표한 경복궁을 살펴본다.

16일(오후 7시)에는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가 ‘벼vs밀: 미면출어맥면(米麵出於麥麵)’를 주제로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며 18일에는 한정주 역사평론가가 ‘인문학으로 읽는 천자



임석재 교수



이화경 작가

문’을 진행한다.

30일 마지막 강의에는 이광래 철학자가 ‘융합주의의 시대와 인문학적 사고: 미술철학을 중심으로’로 강의를 진행한다.

참여는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사전 접수해야하며 선착순 무료다. 문의 1899-55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제원화일로그에서 만나보세요!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서투를 타고 전지 불이까지 있는 실험 동영상 보기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자 잔 엔지니어와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사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외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총로문화센터 옥상방수

시공사례: 함평대학교/광명군보전소/개천대학교/태백시보전소
양정시립도서관/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새로운 혁신!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디스포저

세계최초 BLDC 전자모터 음식물 분쇄기

SDR

SMART DISPOSER ROOT

황금맷돌

2016 International CES
LAS VEGAS, January 6-9
(미국 2016 CES 출품)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발명특허제품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

10년 보장(모터) 10년 보장(모터)

3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CES
K
G
동부화재

상/담/문/의
(062)515-1144